

금융규제완화가 제조업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김 위 생*

I. 서론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일국의 경제에 거시·미시적으로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끼치므로 다른산업에 비해 가격(이자율), 보유자산, 경쟁 등에 대한 규제를 많이 받는것이 보통이다. 즉, 정부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금융질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금리정책 및 업무분야의 조정, 외환관리의 통제를 통해 국내외시장의 분리 등 제반 규제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최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각국에서는 이른바 금융혁신과 금융자율화가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에서는 정부의 금융규제완화와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한 혁신적인 금융상품들의 등장, 금리의 자유화,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구분의 불명확화, 금융기관의 합병 등은 금융기관의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혁신은 가급적 금융규제를 완화하면서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통하여 보다 높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발전의 자구책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급속도로 진행된 금융혁신은 전반적으로 금융자율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자율화란 금융기관이 자유경쟁하에 영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제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금융자율화 추진은 금융기관이 시장원리와 자유경쟁 아래

* 경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 기업이윤추구의 경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일국의 금융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은 한정된 자원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낮은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시장 경쟁원칙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고 규제를 통한 보호속에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기관 경영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이로인하여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역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금융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 정책주도의 관계금융제도를 지향하고 금융자율화를 통하여 시장경쟁 원칙하에서 우리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금융자율화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선진국의 금융자율화가 금융기관의 경영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조사하여

금융규제완화가 초래할 금융기관의 경영전략의 변화가 국내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선진국의 금융자율화 실태

가. 미국 금융자율화 과정

1960년대에 들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경험한 미국의 실물경제는 기업가에게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부문의 투자자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의 일반은행은 활성적인 대출활동을 경험 하였다. 이 기간중 미국 일반은행의 대출 대 자산비율(Loan-to-asset)은 1950년대의 26%에서 1960년에는 53%로 증가한 것은 이를 입증한다.

이때 일반은행은 기존의 금융규제, 즉 지불준비율 및 수신금리 상한법규(Regulation Q)가 자금조달에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업부문의 강한 투자자금수요에 대응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Regulation Q

와 같은 금리규제에 적용되지 않는 유리양도성 예금증서 (Certificates of Deposits)와 기업어음(Commercial paper)와 같은 신상품의 개발로 금융혁신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금융규제가 기존 금융상품과 기존 금융기관을 상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개혁은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이른바 금융시장의 주변부에서 시도됨을 입증하고 있다.

그후 1972년 증권회사에서 단기금융투자신탁(Money Market Funds)를 1972년 도입하여, 증권회사가 일반대중으로 부터 수신한 자금을 CD, CP, TB등의 단기금융시장 상품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매월교부하는 투자신탁의 활성화를 보았는데 이는 이익배당 상한 규제가 없으며 지불준비율(required reserve ratio)에 적용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그후 77년에 도입된 현금관리구좌(cash management account)는 MMF로 운용됨과 동시에 수표발행도 가능하여 자금이자 및 결제기능까지 갖추게 되었으며, 1982년에는 금리상한규제가 없는 단기금융시장 예금구좌(Money Market Deposit Account)개설을 허용됨으로서 금리자유화의 속도는 가속되었다. 1983년 10월에는 소액정기예금의 금리상한이 폐지되었으며 1986년 1월에는 MMDA 및 Super-NOW(Negotiable Order of Withdrawal)구좌에 존재했던 최저잔고 2,500달러 규제를 폐지되고 곧이어 통장식 저축예금 구좌에 대한 금리상한도 폐지됨으로서 미국의 금리자유화는 완성되었다.

미국의 금융자유화 과정은 불완전한 경쟁과 비효율적인 시장에서 금융기관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와같이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개발된 신상품을 금융규제당국에서는 오히려 기존규제를 완화하는 길을 택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시장은 완전경쟁에 더욱 접근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금리자유화 과정은 현금 및 요구불 예금이 결제 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년까지는 100%였으나 85년에는 33%로 감소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는 상업은행의 전통적인 역할 - 즉, 거래구좌(Transaction account)의 유일한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많이 감퇴되었음을 의미한다.¹⁾

1) 이와같이 은행으로부터 증권회사로 빠져나가는 자금유출을 막기위해 1980년 미국의회는 Depository Institution Deregulatory Act를 통과시켜 연방정부예금보험액을 4만불에서 10만불로 상승시켰다.

나. 미국의 금융자유화와 금융기관구조변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금융자유화 과정은 금융규제당국과 금융업계, 그리고 소비자들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동태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련의 금융혁신을 통하여 다양한 금리자유화 상품을 만들어낸 미국 금융업계의 노력은 소비자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금융자유화는 소비자들에게 자유스런 금융행위 즉,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그리고 금리선호에 입각한 신속한 자산선택결정 등을 제공하였으나 일반은행경영에는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미국의 일반은행이 정부의 규제하에 보호를 받을 때에는 높은 수익율을 누렸으나 금융자유화는 일반은행의 수익율을 1980년 후반 부터 감소되었다.(표1 참조)

특히 1933년의 Glass-steagall Act 제정 이래 미국의 은행들은 회사 주식이나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증권을 인수하는 어떤기관도 예금은행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1960-70년대에 걸쳐 일어난 금융혁신, 인플레이 그리고 정보기술 발달 등의 요인이 은행증권업의 분리원칙도 완화시키게 되었다.

이와같은 금융자유화때문에 은행활동중 가장 심각하게 침식당한 분야는 중단기자금 대출시장이라고 지적될 수 있다.²⁾ 전체 기업여신(business credit)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단기대출시장에서 은행의 비중은 높은편이었으나 기업들은 자금조달 원으로 은행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자비용을 지불하는 기업어음 시장을 이용하게 되었다. 즉 (표2)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중단기 대출시장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5년 87%에서 1985년 62%로 감퇴하였다.

2) 1927년 McFadden Act는 주간은행 영업활동을 규제하였으며 본격적인 주간영업규제의 완화는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표1〉 미국 상업은행의 수익성 추이

단위: %

은행 \년도	1987	1988	1989	1990
FDIC 가맹은행	0.09	0.79	0.48	0.49
6 대 은행	-0.68	-1.06	-0.55	-0.35

*자료 : Peter Rose, Commercial Bank Management, 1991

〈표2〉 중단기 대출시장에서의 은행의 비중 (1952-1985)

년 도	1955	1960	1970	1975	1980	1985
비 율	87%	83%	77%	72%	60%	62%

* 자료 : 이장영, '미국, 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정책시준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자료 90-05.1990.11.

〈표3〉 미국 금융기관 도산건수

상업은행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도산건수	20	138	184	200	206	168
저축대부조합도산건수	31	46	47	223	200	

금융규제완화이후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점차 악화 되었으며, 경영기반 약화문제는 심각하여 금융기관의 도산 신용경색 현상이 증가하였다. 1988년이후 저축대부조합의 도산건수는 급증하였다. 〈표3〉에 나타난 것처럼 상업은행의 도산건수가 1985년에는 20건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에는 168건으로 급증하였다.

이와같이 수익성의 악화와 경영기반 약화에 대응하여 많은 은행들은 종업원 감원을

통한 효율적인 은행경영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들면 최근11년간 Bank of New England는 35%, Continental Bank는 13.3%, Chase Manhattan Bank는 12.4%에 달하는 종업원 감원을 실시했다. 한편 은행간의 합병으로서 난국을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³⁾

다. 일본 금융자유화 과정

일본은 1970년대 중반부터 금리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다르게 실물경제의 고도성장기가 끝남에 따라 기업부문의 투자자금수요는 감소하여 기업의 여유자금이 증가한 반면 정부부문의 복지정책실시에 따라 자금수요가 급증하였다.

정부부문의 투자자금을 조달키위해 일본정부는 대량의 국채를 발행하였으며, 76년 6월에는 2-4년제 중기국채를 공모입찰제로 매각하였다. 1977년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채의 매각제한을 완화시킴으로써 국채의 유통시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1978이후에는 도시은행들(city banks)의 환매체거래에 의한 자금조달제한을 완화시켰는데 이로 인해서 시장실세를 반영하는 금리가 형성되어 만기와 위험도에 따라 차등금리가 자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금리자유화가 예금은행에 미친 영향은 일본도 미국과 같이 금리가 규제된 금융상품에서 금리가 자유로운 금융자산(환매채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결과적으로 예금은행의 시장점유율은 1975년의 58.8%에서 1980년의 41.9%로 대폭감소하였다. 반면 우편저금제도가 고수익, 長期貯蓄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공공금융仲介기관의 점유율은 같은기간동안 23.3%에서 31.2%로 팽창하였다.

이와같이 떨어진 은행의 예금흡수력을 제고하기 위해, 양도성 예금증서(CD)의 취급을 허용하여 저축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익율을 보장하였다. 1981년에는 대 신탁(Big Trusts)구조를 신설하여 일반定期예금보다 훨씬높은 수익율을 허용하였다.⁴⁾ 1985년

3) 예를들면, Chemical Banking Corp.와 Manufacturing Hanova Corp.는 인원감축과 규모의 經濟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NCNB Corp.와 C&S/Sovran Corp.도 費用節減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병, Bank of America 와 Security Pacific Corp. 역시 영업망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不良資産 문제해결을 위하여 합병하였다.

도에 들어와 CD금리에 연동하는 시장연동예금의 발매개시와 거액정기예금금리를 자유화시켰다.

라. 일본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일본도 미국처럼 금리자유화의 초기단계에서 은행으로부터의 심각한 자금이탈을 경험하였으며 단기우대금리등 대출금리의 결정이 경직적인 상태하에 도래한 수신금리 자유화는 은행자금 조달비용을 상승시킴으로서 은행경영수지를 악화시켰다.⁵⁾ 대부분의 일본은행들은 보유주식가격 폭락과 주요 담보물인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자기자본비율 규제강화의 영향으로 대출증가억제에서 오는 이자수입 감소는 은행의 수익성 및 재무상태 악화시켰으며 그 결과로서 1990년 중 11개 주요 상업은행의 세전이익은 23.4%나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다시말하면, 금리자유화의 진전으로 금융기관예금에서 차지하는 자유금리예금 비중이 급증한 결과 일본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은 종전보다 증가하였다. 또 일본 금융기관에서는 단기로 조달한 자금으로 장기대출하는 형태의 운영을 실시해 왔는데, 그러나 1989년 후반기부터 단기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예대마진의 축소와 주식시장의 침체로 유가증권 평가이익의 규모가 축소되어 일본금융기관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었다.

〈표4〉 일본은행의 수익성 추이 (x)

(자기자본 이익율)

	1982	1984	1986	1988	1990 (상반기)
도시 은행	9.44	10.66	11.60	11.89	3.24
지방 은행	7.41	7.28	8.11	7.67	2.47

* 자료 : The Banking System in Japan (p.69)

일부 은행에서는 악화되는 수익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박리다매식의 영업을 시도하여 질보다는 자금량에 의존하는 자금확대를 추구하는 은행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

4) 1983년의 경우 2년만기 일반정기예금 금리는 6%인데 반하여 신탁금리는 9.6%였다.

5) 일본 부동산 가격하락폭은 1990년 초반에 전년대비 17%에 달한다.

분의 일본 은행들은 수익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경비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화, 규모의 경제성 추구, 다양한 금융서비스 개발, 기업정보 제공 및 이용자 편의 향상, 새로운 업무 영역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외에도 국내에선 유가증권 투자 및 부동산관련 대출을 확대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일본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주선업무 및 국제 금융업무를 확대하고 나아가 외국 금융기관의 매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일본의 금융기관은 미국처럼 도산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들이 합병추세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기업을 주고객으로 하고 증권 및 국제업무를 겸하는 Whole sale 금융기관이 Universal Banking을 지향하기 위하여 Retail 금융기관을 결합하여 양 분야의 경험과 특색을 상호 보완시켜 영업비용을 절감시키고 동시에 非금리수익을 증대하고자 한데 있다. 그예로서는 協和은행과 琦玉은행의 합병이며 이 합병으로 Computer System 개발 비용절감되었다. 또 과도한 주식투자 및 부동산관련 대출의 실패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독자적으로 경영正常화가 불가능하게 된 중소금융기관을 구제코저하는 차원에서 흡수합병하여 경영의 허점을 보충하기도 한다.

금융기관이 합병할 경우 상당수의 잉여인력이 발생하게되나 일본에서는 歐美의 은행합병과는 달리 합병에 따른 잉여인력을 감원하지않는 관행이 있으며 급여수준은 오히려 상향 조정하게됨으로 경비효율은 합병후 일정기간동안 오히려 저하되는 실정이다. 또한 금융기관 합병후 문제점은 경영 Style차이에서 오는 문제외에도 경험이 미숙한 영업부문을 이해 습득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있지만 이용자의 편리향상 및 은행경영의 효율화측면에서 고려할 때 일본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금융재편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Ⅲ. 우리나라의 금융자유화 추진계획

우리나라 금융은 경제개발계획하에 한정된 자원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낮은 금리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시장경쟁원칙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고 규제를 통한 보호속에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기관 경영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미 확장되고 복잡화된 우리경제규모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고자 정부는 금융자유화 추진일정을 발표하였다. (표6참조)

<표6> 금융자유화 추진 계획

과제별	93년	94년	96년	97년
<금리 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단계 금리유화 - 정책자금을 제외한 모든여신금리 - 2년이상 장기수신금리 - 2년미만 회사채 발행금리 - 금융채, 통화채 및 국공채 발행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단계 금리자유화 - 상업어음할인 등 한은재할인 대상 대출금리 - CE, RP 등 단기시장성 상품에 대한 규제의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금리 - 재정이차보전을 받는 금융자금 대출금리 - MMC, MMF 등 시장금리 연동부 상품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단계금리자유화 - 단계적 요구불예금금리 자유화 방안 마련 - 단기시장성 상품에 대한 제한철폐 검토

과제별	93년	94년	97년
<금융기 관의 내부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은행의 서울, 직할지역의 점포 설치 허용 -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설치 자유화 - 금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경영합리화 추진실적 반영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요건하에 증자 및 배당률 자유화 - 점포배치전환 자유화폭 확대 - 점포증설 허용시 경영결과에 따라 차등화 - 금융기관 경영관련자료의 대외공시 강화 - 금리자유화 추이를 보아가며 기존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증설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 - 새로운 금융상품개발에 대한 자율성 부여

과제별	93년	94년	97년
<정책금 용제도 의 축소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금융 신설억제 - 불가피한 신규 정책금융은 재정에서 지원 - 한시적 정책금융 기한도래시 지원 축소 - 정책금융조정 위원회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은 자동재할인 및 대출의 단계적 축소 - 정책금융지원시 재정부담 확대 - 특수은행의 재원확충 - 정책금융은 특수은행 또는 개정으로 단계적 이관 추진 - 특수은행 이관 : 수출산업설비자금, 중소기업관련자금 등 - 재정이관 : 농축산자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은행의 정책금융 취급 전면폐지 검토 - 중소기업 대출의무 비율의 단계적 - 여신금지 부분의 단계적 축소

우리나라 금융자율화는 70년대 후반 금융부문의 낙후가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확산되면서 80년대초부터 금융자율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은행내부경영의 자율화는 다소 진전이 있었다. 금리자유화는 88년말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실물경제의 악화로 금리안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실질적 금리자유화는 미흡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금융정책은 1970년초 사금융의 제도적 흡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자, 종금, 투신, 금고등 제2금융권에 고금리상품의 취급을 허용함으로써 시중자금이 제2금융권으로 크게 흡수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실시된 금융정책은 예금은행의 수신능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으며 1988년 금리자유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제2금융의 주요 신상품인 기업어음, CMA, 수익증권, 회사채등의 금리는 실질적으로 자유화되었으나 일반은행 수신상품중에서 2년이상 정기예금 및 CD등 일부상품만 금리자유화 시킴으로서 제2금융권의 3개월이하 단기금리가 은행의 1년이상 장기금리를 상회하는등 금리구조의 모순을 나타내었다. 또 1976-1988년 기간 은행정기예금 수신금리는 13.0%인데 비해 제2금융권 평균금리는 18%수준임으로 시중부동자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찾아 제2금융권으로 흡수되었다.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 수신중 예금은행 예수금 비중은 80년대말 69.1%에서 92년말 34.2%로 축소되었으며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수금 비중은 80년말 30.9%에서 92년말에는 65.8%로 2배이상 확대되었다. (표7참조)

〈표7〉 금융권별 여·수신세어 추이
(기말잔액 기준)

		단위 : %					
		1980	85	87	90	91	92
은행	수신	69.1	52.7	46.2	40.5	39.3	34.2
	여신	63.8	58.2	53.5	49.7	48.3	45.2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30.9	47.3	53.8	59.5	60.7	65.8
	여신	36.2	41.8	46.5	50.3	51.7	54.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호

여신기능도 수신기능과 같이 계속 약화되어 전체 대출시장에서 예금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년말의 63.8%에서 92년말 45.2%로 감소하였다. 한편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금 비중은 80년 36.2%에서 92년말 54.8%로 크게 증가되었다.

우리나라 은행은 대출심사능력이 취약한데다 여신금리가 장 단기대출금간에 별다른 격차없이 규제되어 왔기 때문에 장기대출의 취급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단기에금을 장기대출금으로 연결시키는 은행의 만기변환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표8〉 예금은행의 장기대출금 및 단기에금추이¹⁾
(기말잔액 기준)

단위 : 10억원, %

	1980	83	85	87	90	91	92
장기대출금(A) ²⁾	2,483 (20.3)	5,830 (24.1)	7,550 (22.3)	10,708 (24.8)	12,847 (17.4)	14,975 (16.7)	16,462 (16.0)
단기에(B) ³⁾	9,184 (73.9)	18,567 (76.9)	24,052 (76.9)	35,096 (76.2)	64,140 (76.1)	73,574 (74.6)	77,787 (72.5)

주: 1) () 내는 각각 총대출금 및 총예금에 대한 비중

2) 시설대출금과 특별장기대출금의 합계

3) 요구불예금과 단기저축성예금(M2A 기준)의 합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호

가. 중소기업금융의 특성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현재 중소기업의 기업체수는 전체 기업체수의 42.6%이며 중소기업의 고용인구는 전체의 44.3%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1년 현재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총수출의 39.9%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개방과 변혁의 시대에 경제하부구조가 튼튼해야한다는 이론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금융에

서 차지하는 중소기업금융의 비중은 절대규모면에서나 증가속도면에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금융 지급대상으로서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표9>에서 표시되는 것처럼 1990년도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는 전체기업의 26.6%이지만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은행대출은 전체기업의 25.4%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말하면 금융자금 대출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부가가치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하회하고 있다. 이와같은 관찰을 통하여 볼 때 국내의 자금공급은 상대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할 수 있다.

<표 9>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자금대출 추이

구 분	'70	'75	'80	'85	'90
부가가치(A)	3.3	8.4	18.3	22.3	26.6
은행대출(B)	3.3	5.0	14.3	16.5	24.5
B/A	1.00	0.60	0.78	0.74	0.92

주: 부가가치 및 은행대출은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둘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경영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경영규모의 영세성, 재무구조의 취약성 등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낮다. 그외에도 유능한 인재확보의 곤란, 업종내의 과다경쟁, 전근대적인 경영방식, 기술수준의 저하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표10>에서 지적되는것 처럼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비용면에 있어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다. 중소기업은 신용상태의 상대적 열세와 사업전망의 불안정성에 따른 위험부담, 담보력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자금수혜가 어려우며, 자금차입시

에도 차입조건이 불리(고금리, 단기대출 등)한 경향이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차입금 평균이자율 격차는 80년대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90년 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여 91년에는 2.01% 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10〉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입금 평균이자율 비교

구 분	'82	'84	'86	'88	'90	'91
대 기 업 (A)	14.80	11.92	10.84	11.83	10.17	10.70
중소기업(B)	16.04	12.06	11.69	12.60	12.60	12.71
B-A(%포인트)	1.24	0.14	0.85	0.77	2.43	2.01

자료: 한국산업은행, 재무분석, '92년

$$\text{주: 차입금 평균이자율} = \frac{\text{지급이자} + \text{할인료}}{\text{단기차입금} + \text{장기차입금}} \times 100$$

중소기업의 소요자금은 규모가 소액이다. '90년 현재 5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기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98.3%에 달하나 예금은행 대출금중 55.5%만이 중소기업에 대출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규모가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작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액 대출 반복으로 인하여 거래비용 증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격기 등 불건전 금융관행으로 인한 높은 실질금리 부담, 접대비 등 금리외의 거래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간접금융인 차입금에 의존하는 정도가 아주 높다. 1990년 현재 중소기업의 차입금 의존도는 36.3%에 달하며, 차입금 조달원중 회사채발행에 의한 조달비율은 7%에 불과하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채의 건당 발행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발행승인을 받고도 담보 부족등으로 발행을 포기하여 실제발행액이 발행허용액보다 크게 못미쳤기 때문이다.〈표 11 참조〉

〈표 11〉 중소기업의 차입금 조달구조

구 분	'85	'86	'87	'88	'89	'90
차입금 의존도	-	35.1	34.9	35.3	36.0	36.3
차입금 조달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은 행	74.1	74.8	76.5	77.7	77.7	78.5
제 2금융권	12.5	13.0	11.5	11.0	11.6	11.7
회 사 채	8.2	8.1	8.2	8.0	7.8	7.0
사 채	3.5	2.9	2.4	2.1	1.8	1.7
기 타	1.7	1.2	1.4	1.2	1.1	1.1

주 1)연도말 잔액 기준,은행조달에는 차관포함.

2)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소기업의 샘플조사
자료:국민은행, 중소기업금융동향조사, 각년호

넷째, 중소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고용효과가 크며, 중소기업의 비중이 확대되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여 시장기능의 확대가 가능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체질 강화를 기할 수 있으므로 제한된 여신이 중소기업 활동에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제한된 여신이 중소기업이 이와같이 고용 및 생산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대기업에 비해 금융수혜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추어 당국은 대기업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고 경제의 형평성 증진을 위한 금융기관의 여신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장려, 중소기업은행 등을 통한 각종 자금공급 확대조치, 신용보증 확대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중소기업들이 직접 전환사채나 주식을 발행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야한다.

나. 중소기업 금융의 현황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의 자금조달 구성비를 <표12>를 이용하여 비교하면 중소기업들의 경우 사내유보가 적어서 대기업에 비해 은행차입, 회사채 발행 등 외부금융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외부금융중에서 회사채발행이 거의 모든 중소기업들에게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어서 은행차입, 기업간 신용 등 간접금융비중이 대기업에 비해서 훨씬 높다.

<표12>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자금조달 구성비 추이(1979-91)

	대 기 업				중 소 기 업			
	79-83	84-88	89	91	79-83	84-88	89	91
내부금융	27.5	44.8	48.5	35.1	21.9	38.4	33.9	25.8
내부유보	4.0	13.1	19.2	10.8	4.4	15.2	12.3	4.7
감가상각비	20.6	27.0	25.0	20.1	15.0	19.8	18.6	18.3
충당금	2.9	4.6	4.3	4.2	2.5	3.4	3.0	2.8
외부금융	72.5	55.2	51.4	64.9	78.1	61.6	65.8	74.2
직접금융	14.2	14.9	16.1	16.0	11.6	9.8	4.8	9.0
증자	6.7	8.7	7.6	3.3	9.1	7.0	5.1	6.2
사채	7.5	6.2	8.5	12.7	2.5	2.8	0	2.8
간접금융	28.9	19.4	17.9	29.1	34.5	25.7	34.3	37.1
금융기관차입	18.8	14.8	13.7	18.2	25.3	23.7	28.8	25.3
기타 차입	10.1	4.5	4.2	10.9	9.2	2.0	5.5	11.8
기업간신용	13.0	8.2	5.3	9.2	21.7	13.6	12.2	14.8
기타	16.5	12.8	12.1	10.6	10.2	12.4	14.8	1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제조법인기업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중소제조기업의 외부자금조달액은 1991년말 기준으로 약 18조원이며 조달처 구성비를 보면 은행차입이 78.9%, 타 금융기관차입이 11.4%, 회사채 발행이 6.7%이다.

〈표13〉 중소기업의 차입금 조달처 비중 추이 (%)

	1988	1989	1990	1991
은행	77.7	77.7	78.5	78.9
은행이외금융기관	11.0	11.6	11.7	11.4
회사채	8.0	7.8	7.0	6.7
사채	2.1	1.8	1.7	1.9
기타	1.2	1.1	1.1	1.1
합계	100.0(10,402)	100.0(12,466)	100.0(14,762)	100.0(18,246)

주: ()는 금액임

자료: 국민은행, 중소기업 금융실태 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14〉 규모별 중소기업의 차입금조달 구성비(1990년)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회사채	사채	기타	계
5-9인	78.5	8.4	0.0	13.0	0.1	100.0
10-19인	84.4	10.4	0.0	5.0	0.2	100.0
소기업	82.8	9.8	0.0	7.2	0.2	100.0
20-49인	86.7	8.1	0.2	1.9	3.1	100.0
50-99인	86.7	8.4	2.8	0.7	1.4	100.0
100-199인	72.5	16.1	10.3	0.5	0.6	100.0
200-299인	66.9	12.9	19.3	0.9	0.0	100.0
중기업	77.9	11.9	7.9	0.9	1.3	100.0
중소기업	78.58.5	11.7	7.0	1.7	1.1	100.0

자료: 국민은행[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보고서], 1991.

유시권외 2인(1992)에서 재인용

중소기업의 은행차입을 형태별로 세분하면 신용에 의한 차입은 20%미만이며 부동산, 금 기관보증 등에 의한 차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비은행차입의 경우에도 신용에 의한 차입은 25% 미만에 머물고 있다.

〈표 15〉 중소기업의 형태별 차입금 비중 추이

	은행차입		비은행차입	
	1990년	1991년	1990년	1991년
부동산	57.2	58.0	56.1	56.2
신용	18.5	19.1	24.1	23.6
신용보증	20.8	19.5	12.0	12.9
지급보증	2.9	2.8	7.6	7.2
기타	0.6	0.6	0.2	0.1
합계	100.0(7,359)	100.0(8,824)	100.0(1,622)	100.0(1,867)

주: ()는 금액이며 단위는 10억원임
 자료: 국민은행, 중소기업 금융실태 보고서, 1991년.

영세소기업들의 은행자금 차입시 주요 고려사항은 대체적으로 담보조건, 대출금리, 適期지원 여부 순서이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담보조건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적기 지원여부가 상대적으로 중요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IV. 금융자유화가 중소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가. 금융자유화와 중소기업 금융에 미칠 영향

외환시장, 자본시장의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되는 금융자유화가 실시되면 대기

업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기신용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차입조건으로 자금조달을 찾아나설 수 있다. 이러한 금융자유화 조치는 직접적으로 대기업들이 스스로 국제금융 시장에서 기업이미지를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 국내금융기관들에게는 경영체질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간접적으로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됨으로써 차입조건과 자금가용도 측면에서 중소기업금융 확충에 기여하게 된다. 물론 통화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예상되며 국내기업이 자칫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도를 추락시킬 것이 우려되나 이는 다른 차원 또는 부차적인 문제로서 정부 또는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과제이다.

다시말하면 금융자유화가 진전되면 해외자본의 유입이 증가될 것이기때문에 국내에 전체적으로 자금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금융기관들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도 금융기관의 상업적 원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뿐만아니라 대기업과 우량중견기업들은 점진적으로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국내외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것이며 국내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차입조건에 대한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서민가계 등이 국내금융기관의 주요 고객이 될 것이다.

금리자유화가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중소기업들도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직접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부동산 담보부 대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금융관행하에서 중소기업들이 간접금융시장에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기업역사가 일천하며 사적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공개,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 역시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들이 일반사채(무보증, 무담보사채)를 발행하기는 제반 여건상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보증사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보증사채 발행시 신용보증기금, 일반상업은행, 제 2금융권 등 보증금융기관들은 예외없이 물적담보 또는 발행기업 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서 보증사채 발행 역시 중소기업들에게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일반사채 발행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들에게도 대기업과 동등하게 자금조달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며 금융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소망스럽다고 하겠다.

일반사채 발행요건이 완화되어 중소기업들이 고위험, 고수익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 수많은 시장참가자들이 경쟁적으로 중소기업의 사유적 정보를 탐색, 분석, 전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문제가 크게 완화되며 기업신용정보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생성,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성된 기업신용정보가 간접금융시장에 전달됨으로써 이를 기초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여신금리 차등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금융개혁은 중소기업들이 자기신용을 근간으로 자율적인 직접금융시장체제하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관련 제도가 개방과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방향으로 개혁될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내용, 전망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할지라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간접금융시장 일변도에서 직접금융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국제경쟁에 이길수 있는 기술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면 중소기업의 사업내용, 성과, 전망 등이 시장에 널리 알려지고 기업신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나. 금융자유화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기대

마산, 창원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하여 금융시장개방이 중소기업의 금융 기회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300부를 배포하여 86부가 회수되었으며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 창원지역에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자율화가 금융기관의 서비스 개선과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전망하며 금융자율화에 대한 기대가 큰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1%는 정부의 금융자율화에 큰기대를 갖고있지 않지만 89%의 응답자는 금융자율화를 긍정적으로 보고있음을 알수 있다. 즉 정부의 금융자율

화는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다소 심화시킬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9%이며, 금융기관의 서비스가 개선될것으로 판단하는 업체는 35%, 기업의 자금조달이 다소 용이해질것으로 보는 업체들은 15%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의 경영자올화가 중소기업의 대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53%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며 34%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지방금융기관의 대출결정에 불공평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마산. 창원 중소기업들이 지방금융기관으로 부터 기대하는 서비스 개발은 정보제공과 경영지도를 최우선적으로 삼고있다. 설문지 문항중에서 '정보 및 경영지도로서 회사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인다'를 선택한 업체들은 38%에 해당된다. 또 국내외 시장정보 제공과 경영지도를 해 주기를 원하는 업체들은 21%, 선진기술을 확보한 외국기업과 제휴를 앞선해줄 것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18%로 나타났다.

83개업체중 61개 업체(전체의 73%)의 규모가 매출액 50억원이하, 종업원수 100명이 하인 소기업인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미루어 본 설문 대상업체의 규모특성은 영세함을 알 수 있다.

〈표16〉 기업규모 현황(종업원 대비 매출액)

단위금액: 억원

매출액 단위 \ 종업원 수	0-100	100-300	300-500	500-1000	1000 이상	기 타	합 계
1 - 50	61 (73.5%)					3 (3.8%)	64 (77.1%)
50 - 100	2 (2.4%)	3 (3.6%)				2 (2.4%)	7 (8.4%)
100 - 500		2 (2.4%)	2 (2.4%)				4 (4.8%)
500 - 1000				2 (2.4%)			2 (2.4%)
1000 이상		1 (1.2%)			2 (2.4%)		3 (3.8%)
기 타*	2 (2.4%)	1 (1.2%)				3	6 (7.2%)
합 계	65 (78.3%)	7 (8.4%)	2 (2.4%)	2 (2.4%)		8	86

* 기타란은 설문지 미응답자임.

설문지 응답업체중 매출액, 종업원수란 중 단 한란에도 응답하지 않은 업체는 3개업체임. 이를 제외한업체 83개업체가 최소한 한개란 이상에 응답하였음.

금융자율화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조업, 조립, 금속, 기계제품과 관련된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업체의 규모특성은 매출액 100억이하, 종업원수 100이하의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비율은 설문대상 전체 평균(1-5%)에 비해 상회하는 경향(5-10%)을 보인다. 그러므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비용이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자율화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표17참조〉

<표17>금융자율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갖는 기업

업종	기업 규모		연구개발비 투자현황
	매출액	종업원수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85	54	1%이하
목재 및 나무제품	5	25	1%이하
종이제품및인쇄출판업	10	27	1%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296	485	1%이하
	6	20	10%이하
조립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8	17	1%이하
	45	50	5%이하
	24	32	10%이하
	17	28	5%이하
	8	20	5%이하
	9	16	1%이하
	18	32	10%이하
	40	25	1%이하
	7	12	10%이하
	15	40	5%이하
	66	100	5%이하
	114	110	5%이하
	기타제조업	62	74
44		70	1%이하
218		430	1%이하
40		28	5%이하
9		15	5%이하
21		35	5%이하
9		25	5%이하
7		27	5%이하
308		226	5%이하
11		24	5%이하
10		43	10%이하
51		.	10%이하

〈표18〉 외국기업과의 경쟁정도와 연구개발비 투자현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현황					합 계
		1%이하	5%이하	10%이하	15%이하	15%이상	
외국기업과의 경쟁상태	높 다	4(4.7%)	3(3.5%)				7(8.1%)
	같 다	12(14.5%)	7(8.1%)	3(3.5%)	1(1.7%)		23(26.7%)
	낮 다	6(7%)	9(10.5%)	2(2.3%)			17(19.8%)
	경쟁없음	23(26.7%)	12(14%)	4(4.7%)			39(45.3%)
합 계		45(52.3%)	31(36%)	9(10.5%)	1(1.7%)		86(100%)

86개업체중 76개 업체가 매출액의 5%이하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고 이중에서도 외국기업과 현재 경쟁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35개 업체임을 감안할때 시장개방시 국내기업은 경쟁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될것이다.

금융기관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중소기업을 고객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에대한 반응 역시 흥미스럽다. 즉 외국 선진기술의 이전 또는 제휴를 주선해주는 서비스를 활용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들의 규모는 비록 영세하지만, R&D 투자비율은 설문대상업체의 평균 R&D 투자비율보다 다소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19참조>

〈표 19〉 외국 선진기술의 이전 또는 제휴를 주선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와 “한번고려해보겠다”로 응답한 업체들의 특성)

업종	규모		R/D (%)이하	비고 (차지하는 비율)
	매출액(억원)	종업원수(명)		
기타 제조업 (8개업체)	26	30	5%	36%
	9	25	5%	
	30	30	1%	
	1570	250	1%	
	44	70	1%	
	218	430	1%	
	6	24	5%	
	10	43	10%	
조립 금속 기계 제품 및 장비 (10개업체)	20	/	/	45%
	45	50	5%	
	66	100	5%	
	24	32	10%	
	9	16	1%	
	14	18	5%	
	10	21	1%	
	7	21	10%	
	15	23	10%	
	114	110	5%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프라스틱	17	30	5%	9%
	574	950	5%	
목재및나무제품	17	33	1%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85	54	1%	

*설명

- 1)업종은 기타제조업이 8개업체, 조립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업체가 10개로 나타남.
- 2)매출액은 대부분의 기업이 100억원 이하로 나타남.
- 3)R/D는 5%이하--10%이하 사이의 업체가 13개업체로 나타남.

V. 요약 및 결론

금융자율화로 인하여 선진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하락시켰으며 그 결과 은행이 도산 또는 합병하는 예들을 경험하였다. 금융개혁이 우리나라의 금융업계에도 선진국이 경험한것과 유사한 환경변화를 초래할 것 인지는 두고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금융규제완화는 자금의 흐름을 시장경쟁의 원리에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힐것이며 따라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금융자율화로 인하여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그결과 수익성이 하락되었다.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전통적인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해외시장 침투등의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은행간의 합병 또는 도산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금융규제완화는 자금의 흐름을 시장의 경쟁원리에 따르게 하기때문에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제조업체들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융개혁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업계에서도 선진국이 경험한 것과 유사한 환경변화를 초래할 것인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조업 실무종사자들을 통한 설문조사로서 금융자율화와 제조업 국제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자 했다.

마·창지역에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자율화가 금융기관의 서비스 개선과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전망하며 금융자율화에 대한 기대가 큰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1%는 정부의 금융자율화에 큰기대를 갖고있지 않지만 89%의 응답자는 금융자율화를 긍정적으로 보고있음을 알수 있다. 즉 정부의 금융자율화는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다소 심화시킬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9%이며, 금융기관의 서비스가 개선될것으로 판단하는 업체는 35%, 기업의 자금조달이 다소 용이해 질것으로 보는 업체들은 15%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의 경영자율화가 중소기업의 대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53%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며 34%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지방금융기관의 대출결정에 불공평

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마산, 창원 중소기업들이 지방금융기관으로 부터 기대하는 서비스 개발은 정보제공과 경영지도를 최우선적으로 삼고있다. 설문지 문항중에서 '정보 및 경영지도로서 회사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인다'를 선택한 업체들은 38%에 해당된다. 또 국내외 시장정보 제공과 경영지도를 해 주기를 원하는 업체들은 21%, 선진기술을 확보한 외국기업과 제휴를 앞선해줄 것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18%로 나타났다.

자사제품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질문에서는 외국수준 보다 높다고 응답한 업체는 14%, 동등한 수준이다 28%, 외국업체보다 낮다는 18%이며 외국기업과 경쟁하지 않는 업체는 30%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의 취약 요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저임금 국가제품과의 상품차별화와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지적, 기술개발 지원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 되었다. 기술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물음에서는 58%가 국내기술로 자체개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외국으로 부터 선진기술을 이전 받는다는와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자체개발해야 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28%와 14%에 그쳤다.

기술개발비 투자액이 총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1%이하가 37.2%, 그리고 46.5%가 5%이하를 쓴다고 답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율화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것이라고 믿는 업체들은 제조업, 조립, 금속, 기계제품과 관련된 업체가 대부분이며 기업의 규모는 종업원수 100명 이하의 소기업들이다. 이 기업들의 특징은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5-10%정도 인것을 보아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비용이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자율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기관이 개발하기를 기대하는 새로운 서비스분야는 선진기술 이전 또는 제휴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며 또 이러한 서비스를 원하는 업체들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이 대체적으로 높은 기업들이다.

* 설문지 내용 *

1.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자율화는 금리의 자유화, 금융기관 경영자율화, 금융기관의 신규진입규제 완화 등이다. 이러한 규제완화와 경영자율화가 금융기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리라고 보는가?

1)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다소 심화될 것 이다	26%
2) 금융기관의 서비스가 개선될 것 이다	40%
3) 기업의 자금조달이 다소 용이할 것으로 기대한다	18%
4) 별다른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12%

2. 경영자율화의 일환으로 최근 한국은행은 지방소재 중소기업체 대출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융기관별로 대출한도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귀사의 자금조달 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는가?

1) 용자제한이 완화되고 절차가 간편하여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36%
2) 지방 금융기관과 지방중소기업간에 정보교환이 더욱 활발할 것이다	16%
3) 지방 금융기관의 대출결정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53%
4)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3. 금융기관들이 아래의 서비스를 개발했을때 귀사가 선호하는 우선순위를 표하시오.
(최우선 1번부터 - 4번)

1) 정보 및 경영지도로서 회사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인다.	() 34%
2) 정보망 구축으로 국내외 시장정보를 정기적으로 분석, 제공한다.	() 38%
3) 선진기술을 확보한 기업과 제휴를 알선하다.	() 16%
4)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지도에 참여한다.	() 4%

4. 귀사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개발하기를 원하는가?

1) 정보 및 경영지도로서 회사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인다	44%
---------------------------------	-----

- | | |
|----------------------------------|-----|
| 2) 국내외 시장정보를 정기적으로 분석. 제공한다 | 26% |
| 3) 선진기술을 확보한 기업과 제휴를 알선한다 | 18% |
| 4)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지도에 참여한다 | 6% |
| 6. 귀사의 국제경쟁력은 어느수준입니까 ? | |
| 1) 외국업체 수준보다 높다 | 14% |
| 2) 외국업체수준 정도이다 | 28% |
| 3) 외국업체 수준보다 낮다 | 18% |
| 4) 외국업체와 직접 경쟁하지 않는다 | 30% |
| 7. 귀사의 상품이 경쟁력이 취약한 이유는? | |
| 1)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 34% |
| 2) 제품의 품질이 낮기 때문에 | 8% |
| 3) 시장정보의 취약성 때문에 | 28% |
| 4) 지나친 정부규제 때문에 | 10% |
| 8. 귀사제품의 국제경쟁력에대한 전망은? | |
| 1) 아주 긍정적이다 | 22% |
| 2) 다소 긍정적이다 | 44% |
| 3) 다소 부정적이다 | 26% |
| 4) 아주 부정적이다 | 0% |
| 9. 귀사제품의 국제경쟁력에대한 전망이 밝은 이유는? | |
| 1) 국내외적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 16% |
| 2) 회사측의 기술향상으로 생산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 36% |
| 3) 경영진의 경영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때문에 | 10% |
| 4) 근로자의 근로의식 회복에서 오는 생산성제고 때문에 | 2% |

10. 귀사제품의 국제경쟁력에대한 전망이 밝지 못한 이유는?
- 1) 저임금국가 제품과의 상품품질 차별이 현저하지 못하다 28%
 - 2) 회사내의 기술개발에 기대할 수 없다 8%
 - 3) 기술부족의 어려움이 쉽게 해결될것 같지않다 22%
 - 4) 경영진이 환경변화에 민감하지 못 하다 8%
11. 기술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 1) 외국으로부터 선진기술을 이전받는다 28%
 - 2) 산업기술을 국내기술로 자체개발한다 58%
 - 3)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자체개발한다 6%
 - 4) 해외기업을 인수하여 첨단기술을 국내로 도입한다 4%
12. 외국 선진기술의 이전 또는 제휴를 주선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 1)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38%
 - 2) 한번 고려해 보겠다 34%
 - 3) 득실을 고려하여 이용하겠다 20%
 - 4) 전혀 관심이 없다 0%
14. 귀사가 바라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 1) 인력문제 해결 16%
 - 2) 기술개발 지원 46%
 - 3) 시장정보 제공 12%
 - 4) 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 20%
15. 귀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는?
- 1) 선진산업기술을 취득해야한다. 14%

- 2) 경영인의 사고혁신과 관리직원의 생산성을 높여야한다 16%
- 3) 임금안정과 근로의욕 회복으로 생산성을 높여야한다 44%
- 4) 시장과 경쟁업체에관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22%
17. 귀사에서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경력은 ?
- 1) 전혀 없다 32%
- 2) 2년 미만 42%
- 3) 5년 미만 18%
- 4) 8년 이상 4%
18. 기술개발에 참가하고 있는 인력 및 귀사에 근무한 년한은 ?
- 1) 박사학위 취득자 () 명; 근무년한 평균 () 년
- 2) 석사학위 취득자 () 명; 근무년한 평균 () 년
- 3) 학사학위 취득자 () 명; 근무년한 평균 () 년
- 4) 전문대학. 기능대학 졸업자 () 명; 근무년한 평균 () 년
19. 기술개발비 투자액이 연간 총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율은 ?
- 1) 1 % 이하 32%
- 2) 5 % 이하 40%
- 3) 10 % 이하 10%
- 4) 15 % 이하 2%
- 5) 15 % 이상
20. 귀사의 업종은 ?
- 1) 음식료업 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 4) 종이. 종이제품. 인쇄 및 출판업 5) 비금속광물제품
- 6) 제1차금속 7)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

8) 조림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9) 기타 제조업

23. UR 협상타결은 귀사의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것으로 믿는가?

- | | |
|--|-----|
| 1) 국내시장을 외국기업에게 빼앗겨 수익성이 감소될 우려가 높다. | 24% |
| 2) 국내시장을 국내경쟁업체에게 빼앗겨 수익성이 감소될 우려가 높다. | 10% |
| 3) 국외시장의 진출기회가 확장되어 수익성이 증가할 것으로 믿는다. | 20% |
| 4) 기술과 경영확신으로 수익성은 오히려 제고될 것으로 믿는다. | 16% |

참 고 문 헌

- 김 위 생, 금융국제화와 은행의 수익성, 경제분석, 24호, 1994, 경남은행.
- 김 위 생,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중소기업정책의 추진방향, 한국은행 창원지점, 1993.2
- 김 성 기, 최근의 금융업 개방과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방안, 부산은행, 92.1
- 박 정 근, 우리나라 은행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한국산업은행 조사월보, 93.10
- 장 충 식, 금융자유화와 중소기업 금융의 활성화, 대한상공회의소, 1994
- 한 진 우, 금융자유화와 산업금융의 개선방안, 대한상공회의소, 1993
- 이 장 영, 美 日本의 금융자유화와 정책시준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자료 90-05, 1990.11
- 한국은행, 美·日 금융마찰과 일본금융시장의 변화, 조사연구자료 90-27
- , 非은행 금융기관이 통화공급에 미치는 영향, 조사통계월보 1994.2.
- , 우리나라 은행기능의 낙후상과 그 영향, 조사통계월보, 1993.7
- , 지역 금융통계, 통계업무자료 91-26
- , 조사통계월보, 1991.7
- , 최근 일본의 금융기관 재편현황, 조사 제1부 해외조사과, 동경사무소 1991.6
- 한국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업무자료: 감경-7, 1991.4
- Gunter Duffy and Ian Giddy, "Innovations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Fall 1981).
- Federal Reserve Bulletin, Monthly, Various issues
- Federation of Bankers Association of Japan, *The Banking System of Japan*, 1989
- Peter S. Rose, *Commercial Bank Management* Richanrd Irwin, Inc., 1991